

보도시점 2025. 2. 28.(금) 16:30 배포 2025. 2. 28.(금) 08:30

특허청, 공공기술 이전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전력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 서울대 창업기업 관악아날로그 방문 -
- 현장 지식재산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28.(금) 16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날로그 전력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관악아날로그(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학 창업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악아날로그는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판매 기업으로, 특허청의 ‘공공 IP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분석과 기술 발전 방향 전망 등 특허 분석과 서울대학교의 특허 이전 중개를 지원받았다.

나아가 다수의 해외 특허, 반도체 배치 설계권을 포함한 400여 건 이상의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0억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나가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의 원천인 대학의 공공기술 이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업은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특허 기술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어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책임자	과 장	윤준호 (042-481-3542)
		담당자	사무관	이도영 (042-481-5406)

□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아날로그 반도체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사업화한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지원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
- (일시) '25. 2. 28.(금), 16:30 ~ 17:30
- (장소) 관악 아날로그(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주기업)

- 기업개요 : 서울대학교의 '고정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술 연구' 관련 특허를 이전받아 창업('18)한 기업으로, 고정밀 아날로그 및 고효율 전력관리에 특화된 시스템반도체와 시계열 신호처리에 특화된 엣지 AI반도체를 개발 중
- 특허청 지원 내용 : '공공 IP 사업화 지원'을 통한 ❶보유특허분석, ❷시장조사, ❸실용화 검증 지원 및 ❹서울대학교의 특허 이전 중개 지원('21년)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정국장, 아이디어과장, 담당사무관 등
- (관악아날로그㈜) 김수환 대표, 전켄트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중민 변리사, 이채은 변리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략원장, 특허전략확산본부장, 활용전략팀장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0~16:35 5"	■ 사진 촬영	참석자
16:35~16:45 10"	■ 제품 시연	관악아날로그㈜
16:45~16:47 2"	■ 참석자 소개	참석자
16:47~17:00 13"	■ 기업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	관악아날로그㈜
17:00~17:15 15"	■ 지원사업 성과소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7:15~17:30 15"	■ 기업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참석자